

## 2m 장신벽 스피드로 넘는다

### 광주 월드컵 국제남자 배구 오늘 개막 '열전 3일'

### 세계 최고 선수들 불꽃 대결 ... MBC스포츠 생중계

한국의 '스피드 배구'가 광주 배구팬들을 흥린다.

2012 광주 월드컵 국제남자 배구대회가 22일 오후 2시 영주체육관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번 대회는 7월4일 시작되는 결선에 앞서 치러지는 대륙간 라운드 C조에 포함된 한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의 대결이 24일 까지 3일간 전개된다.

월드리그 8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는 전통의 배구 강국으로 세계 랭킹 3위에 올라 있다. 베스트 멤버가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8명의 선수가 2m가 넘는 장신군단으로 높이의 배구를 자랑한다.

세계랭킹 6위의 미국은 2008년 월드컵 우승과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핵심 선수의 결장으로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전성기 재현을 목표로 내걸고 2009년 사령탑에 오른 엘런 나이프 감독의 용병술이 관심거리다.

프랑스는 2006년 월드컵 준우승 이후 지난해 12위를 차지하는 등 번번이 결승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 랭킹이 한국보다 한 계단 낮은 21위지만 이번 대회에서 4승2패로 승점 11점을 획득, 2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과 광주에서 1위 싸움을 벌이게 된다.

1991년부터 월드컵에 참가해온 한국은 '스피드 배구'로 안방에서 승리를 쟁기겠다

는 각오다.

지난해 박기원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한국은 '스피드 배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1주차 경기에서 한국은 3경기 모두 5세트 풀점전을 펼치며 선전했다. 아쉬운 심판 판정과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3패의 성적에 받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플레이를 했다.

2주차 경기에서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3-2 역전극을 펼쳤다. 1992년 승리 이후 20년 만의 이탈리아전 승리였다.

스피드를 통해 신장과 파워의 약점을 극복한 한국은 빠른 배구로 안방에서 열리는 3주차 경기에서 화끈한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제배구연맹(FIVB)이 주최하고 대한배구협회, 광주시배구협회,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의 경기는 22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4시30분에 펼쳐진다. 한국은 22일 프랑스, 23일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 날 미국과 오후 2시에 대결을 갖는다.

입장권은 성인 5000원, 학생 2000원으로 오전 11시부터 현장에서 판매된다. 예매를 희망하는 관람객들은 광주시배구협회(062-372-621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회 한국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 MBC스포츠플러스가 독점 생중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 광주 월드컵 국제남자배구가 22일 영주체육관에서 개막한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이 24일까지 수준 높은 플레이로 광주를 배구의 열기로 물들인다. 사진은 2주차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 모습. <FIVB 제공>

## “프로 배구팀 광주 유치 기회로”

### 월드리그 국제 배구 준비

### 고광삼 광주시배구협회장

“광주가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광삼 광주시배구협회장이 2012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경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고 회장은 “4년째 월드컵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시의 각별한 관심으로 인선, 수인 분산 개최가 아닌 광주 단독 개최로 열게 됐다”며 “한국대표 선수들은 물론 쉽게 만날 수 없는 세계 강호 이탈리아·미국·프랑스 선수들의 수준높은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매년 월드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고 회장은 배구가 광주의 스포츠 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고 회장은 “동계 프로 스포츠가 없는 광주에 배구의 열기를 심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프로팀 유치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광주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언급



했다.

월드리그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고 회장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고 회장은 “2013·2014년 아시아선수권대회나 청소년대회 등 국제 대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팀을 초청할 계획이다”며 “배구를 통해 스포츠 메카로서 광주를 부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하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산CC서 KPGA시니어선수권

### 27일 2라운드 36홀 경기

2012 KPGA시니어선수권대회가 27일 화순 무등산 CC에서 개막한다.

(사)한국프로골프협회와 J골프가 주최하고 (주)한국프로골프투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플레이로 8일까지 무등산CC(천왕봉, 지왕봉코스)에서 진행된다. 총상금은 1억1000만원이다.

무등산 CC 정상균 사장은 “전 임직원

들이 고객이 감동하는 골프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훌륭히 성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가 진행될 무등산CC는 지난 2008년 개장한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하늘을 향해 열린 땅’이라는 테마로 구성돼 필드 어느 곳에서나 무등산의 자태를 조망할 수 있다. (문의 : 061-379-1009)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산 CC

## 광주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박차’

### 전국 최초 장애인종합체육센터 건립 앞두고 저변 확대 나서

광주시가 민선 5기 100대 과제인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전국 최초의 장애인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앞두고, 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해 올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내실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

먼저 올 10월 열리는 제3회 전국적수장애인체육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휠체어를 이용, 탁구와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으로 치러지는 전국적수장애인체육대회는 광주시가 국제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올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장애인체육사업이다. 9월에는 제6회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다. 해마다 참가자가 늘어나는 광주시의 가장 큰 장애인체육행사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장애인체육 이동교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광주지역 80여개소에 열리는 이동교실은 장애인의 장애부위를 감안, 배드민턴에서 태권도, 에어로빅까지 복지관과 학교 강당 등을 이용해 장애인과 만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광주시는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전국 최초의 장애인 탁구팀(감독 1, 코치1, 선수4)을 창단하면서 지역 장애인체육계에 꿈을 안기기도 했다. 탁구팀 선수들은 지난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선수권 대회에 참가,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전원이 올해 열리는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경배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타 자치단체가 장애인 스포츠단을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과 달리, 광주시는 직접 탁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6월 말 장애인 탁구팀 전용 훈련장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60억원(국비 50억원·시비 10억원)을 들여 짓는 장애인종합체육센터는 경기는 물론 의료부터 재활까지 가능한 장애인 전용 복합시설이 될 것”이라며 “광주지역 6만9000여명의 등록 장애인 중 15%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